



자신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

신뢰만이 조직사회에서 인정

이진만/ 한국팩키지(주) 기획무역팀 팀장

제 영업이 아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꿈이라면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회사로부터 받길 원한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조직사회에서 누구 하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없겠지 만 하나의 톱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새것으로 교체 당할 수 있는 것이 조직체의 구성원이다.

그런 면에서 카톤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한국팩키지의 이진만 기획무역팀 팀장은 조금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팀장은 한국팩키지의 모기업인 한국제지(주)에 1987년 9월에 입사해 1994년 2월까지 7년여를 일하다가 회사를 사직한 후 1994년 11월에 다시 재입사해 지금까지 한국팩키지에 근무하고 있다.

이 팀장은 “당시 회사를 사직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분의 일을 돕고자 그만 둔 것이었는데 막상 시멘트운송, 전자재 취급 등



의 일을 하다 보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며 당시의 일을 담담히 말했다. 이 팀장은 회사에 입사해 기획, 수입에 관한 일을 주로 하다가 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막노동일을 하다보니 일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고 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신을 주목하는 것 같아 자괴감에 빠져 재입사후 한동안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얼마 후 깨달은 점은 ‘나 자신이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 조직사회에서 필요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인정해준 회사에 감사하고 능력을 인정받았다는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당시의 감정을 표현했다.

더불어 이 팀장은 “한국제지에 처음 입사할 때 제기업체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내가 이 회사에 꼭 입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도

자신의 발전을 이뤘다는 데서

만족감을 느낌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이 길에 최선을 다하고자 신입사원 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게 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 소개했다.

입사 후 전산 관련에서는 문외한이었지만 혼자 아침시간을 활용 독학 지금은 한국팩키지의 전산시스템을 총 관리할 정도가 됐다는데서 보람을 느끼고, 어학이 부족해 스테디그룹을 만들어 아침시간에 일본어를 학습해 자신의 발전을 이뤘다는데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직업선택을 할 때 그 직업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이라면 혹은 타의에 의해 선택했더라도 일단은 그 직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요새 경제가 어려워 청년 실직자는 늘어나지만 3D업종에서는 인력난에다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수입하다 쓰는 이 이윤 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일, 편한 일을 하려고만 드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진만 팀장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것 같다”는 말로 현실을 표현했다.

한국팩키지 주생산품인 카톤팩의 우리나라 총 시장규모는 연간 약 천백억원의 시장규모로 거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로 인해 외형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이제 해외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 팀장은 말하고 있다. 거대한 잠재수요를 갖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이진만 팀장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고 한다. 모든 일에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이것 저것 따지게 되어 자칫 자만에 빠지기도 쉽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조직체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샐러리맨들이지만 이진만 팀장과 같이 나태하지 않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안정한 미래의 나침반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다. ☐

박기진 기자